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주역들 한자리 모였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28일 남악 스키아워딩컨벤션에서 농수산물 수출기업, 수출유관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농수산물 수출기업 전진대회'를 열어 2026년 수출 10억 달러 달성 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선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2025년 농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을 공유했다. 전진대회는 2026년 농수산물 수출 10억 달러 달성 목표 퍼포먼스, 전남 식품산업현황과 수출전략 발표, 우수 시군 사례 발표(장흥군), 글로벌 B2B 플랫폼 트릿지의 수출 전문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엔 9곳이 선정됐다. 대상에 장흥군, 최우수상에 나주시, 해남군, 신안군, 우수상에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이 도지사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포함된 수출 유관기관 3개소와 수출 확대에 공로가 큰 수출 유공자 8명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특히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격려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전남 농림축수산물 수출탑에는 ▲1천만 불 ㈜엘림푸드 ▲700만 불 ㈜라벨라, ㈜에원 ▲600만 불 ㈜스마일프레쉬 ▲500만 불 ㈜바다명가 ▲100만 불 오성수산, 해미원, ㈜세화제이엔제이식품, ㈜네시피에프



2025 농수산물 수출기업 전진대회 참석자들이 행사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진대회서 10억달러 달성목표 퍼포먼스·수출성과와 전략 공유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해...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수출 실적

엔비 ▲90만 불 영농조합법인 광수 ▲70만 불 ㈜리턴슈라이 ▲50만 불 ㈜미가원, ㈜푸른정식품 ▲40만 불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30만 불 영농조합법인 풋거름, 석곡농업협동조합, 가나종묘(주) ▲20만 불 완도바다 영어법인 ▲10만 불 ㈜현대푸드시스템이 각각 수상 영예를 안았다.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잇따라 갱신하는 것은 수출기업·유관기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외

품목별로는 수산물 4억 5천973만 달러, 농(축)산물 2억 6천632만 달러로 증가세다. 전체 수출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3.3%, 농산물은 36.7%다. 김 수출은 3억 6천618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인 50.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일본 1억 8천184만 달러(전년 대비 9.3% 증가), 미국 1억 3천671만 달러(9.6% 증가), 중국 1억 1천364만 달러(12.5% 증가) 순이다.

이는 시군 협력과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의 결과로, 농수산물 수출 1조 원 시대를 넘어 2026년 농수산물 수출 10억 불 시대 달성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신영길 기자



광양만권세풍산업단지 조감도.

광양경자청, 선일물산 425.5억 투자유치

세풍산단에 수출용 조미김 공장 건립...일자리 창출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1월 27일 선일물산(대표 김태환)과 광양 세풍산업단지 내 수출용 조미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42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라남도·광양시와 함께 서면으로 진행됐다.

선일물산은 목포 연산동에 본사를 둔 식품가공 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연 매출 400억 원대 중견업체로 성장했다.

회사는 세풍산단 1만8,046㎡ 부지에 총 425.5억 원을 들여 수출용 조미김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17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공장 구축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과 광양시, 광양경자청은 기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선일물산 또한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기업 활용, 지역 생산품

구매 확대 등을 약속하며 지역경제와 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생산능력 확장을 추진할 경우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투자로 세풍산단 내 식품 가공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서, 지역 농수산물 가공 경쟁력 강화와 수출형 식품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 지역 산업의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종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선일물산의 투자는 광양 지역 식품 가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략적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

내년 1월 2일 '노사민정 통합 신년인사회'

양진석 회장 "위기 넘어 화합·재도약 다짐하는 자리"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가 내년 1월 2일 오전 6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2026년 노사민정 통합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 신년인사회에는 광주경총을 비롯해 광주광역시경총,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대한전전문건실협회 광주광역시회,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중소기업융합회 광주전남연합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광주지회가 참여한다.

신년인사회는 매년 지역 20여 개 협회·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내년에는 10개 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 최초의 행사로, 광주·전남 각 단체 회원사와 기관장, 정치권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오전 6시 30분 희망떡국 나눔 행사에 이어 신년사, 주요 기관장의 덕담,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희망찬 명운년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 10개 경제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며 "역동적인 말의 기운으로 위기를 넘어 화합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광주·전남 경제계의 힘찬 새 출발을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대규모 소비 축제 '연말 빅세일페스타' 연다

나주시, 10일부터 25일까지...상점별 5~20% 현장 할인 행사

전라남도 나주시가 연말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소비 축제를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연말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연말 빅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점별 자체 할인과 캐시백 지원을 결합한 대규모 상생형 할인 구조를 마련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행사는 단순 할인 이벤트를 넘어 상가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한 새로운 소비 상생 모델로 기획됐다.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나주시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최대 300개 상점을 모집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말 빅세일페스타'는 추석 명절과 영산강축제 기간 운영한 '나주시 상가 상생페이백 행사'를 더욱 확장한 방식으

로 상점들의 할인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상가 보상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5~9% 현장 할인 제공 상가에는 10만 원, 10% 이상 할인 제공 상가에는 20만 원을 행사 종료 후 보상 지원한다.

행사 기간 참여 상가는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나주시는 여기에 15% 캐시백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특별 할인 중인 나주시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 할인을 18%(10% 선할인, 8% 캐시백)에 더해 소비자는 최소 38%, 최대 53%에 달하는 실질적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나주시는 지역 내 많은 상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착순 300개소까지 참여 상가 모집 진행 중으로 신청은 오는 4일까지이며 나주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행사 기간 5% 이상의 자체 할인이 가능한 상점이면 참여할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함평 겨울빛축제 '순금 한 돈 황박이' 경품 이벤트

관광객 대상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

전남 함평축제관광재단은 겨울빛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 '골든 황박이를 잡아라'를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장을 방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재단은 내년 1월 11일 겨울빛축제 폐막식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1등 순금 한 돈 '골든 황박이 뱃지'(1명), 2등 함평 한우 선물세트(2명), 3등 황박이 굿즈 꾸러미(5명)를 제공한다.

1등 경품인 골든 황박이 뱃지는 함평의 상징인 황금박쥐상을 본따 제작한 경품으로, 함평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첨은 공정성을 위해 함평축제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하며, 결과는 유튜브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참여 방법은 축제장 내·외부 9개 지정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함평축제관광재단 계정을 팔로우하고,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한 뒤 재단에서 제공하는 응모 사이트에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QR코드는 빛의 회전목마, 빛의 미로와 트리, 불명존, 체험 프로그램존, 이이남 미디어아트 등 축제장 내 5곳과 함평공영주차장, 함평나비어울림센터, 함평읍사무소, 함평전지중합복지관 등 읍 시가지 4곳에 마련했다. 사진에는 읍 시가지 장소 1곳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함평/전광훈 기자

